

제42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월 23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협회 임원 및 업·단체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6년도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과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대한 의안을 상정, 승인했다.

한준호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전기분야 기술개발과 시장경쟁 체제로의 무역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처하고 WTO/TBT 협정과 조화되도록 전기사업법과 기술기준의 국제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5단계 2차년도 개발사업과 함께 KS원자력 국제표준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4월 10일 전기의 날을 기념하여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가 열리며, 금년에는 전력산업을 위해 헌신한 전기계 유공자들에게 훈장과 포상을 수여하는 등 전기계의 화합과 축제의 기념행사 외에도 협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과 지난해부터 한·일 양국의 전기협회가 전력분야 기술교류를 위해 시작한 ‘한·일 전기기술 교류 컨퍼런스’도 한국에서 두 번째 개최하여 양국간의 전기기술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법인회원인 한전KPS(주), (주)전기설계협인, 개인회원인 원준희 (주)신우엔지니어링 고문, 김재철 숭실대 공대 교수 등 전기산업 유공자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했다.

대한전기협회 제42회 정기총회 開會 辭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다.

오늘 대한전기협회 제42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전원개발로 전체 발전설비용량이 6,500만kW를 넘어섰는가 하면 140만 kW급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 등 발전분야를 비롯한 송전, 변전 및 배전 등 모든 전력산업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실용화 등 자립기반 구축을 꾸준히 다져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시는 회원 여러분과 전기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 우리 협회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전기계 중심단체로서의 역할중대로 협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전기분야 기술개발과 시장경쟁 체제로의 무역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처하고 WTO/TBT 협정과 조화되도록 전 기사업법 기술기준의 국제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KEPIC, 즉 전력산업기술기준의 5단계 2 차년도 개발사업과 함께 KS 원자력 국제표준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4월 10일 '전기의 날' 을 기념하여 제42회 '전기산업진흥축진대회' 가 열립니다. 본 행사는 전력산업을 위해 헌신한 전기계 유공자들에 대한 훈·포상을 수여하는 등 전기계의 화합과 축제의 기념행사 외에도 협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샵과 지난 해부터 한·일 양국의 전기협회가 전력분야 기술교류를 위해 시작한 『한·일 전기기술 교류 컨퍼런스』도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여 양국간의 전기기술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KEPIC 5단계 사업의 홍보와 적용 활성화를 위해 '2007 KEPIC-Week' 행사를 8월에 개최하게 됩니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전기부문 표준품셈업무와 전력신기술 지정심의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력산업기술의 세계 전력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 수행과 다양한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 전기계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전기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 전력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력산업 표준전자문서 및 B2B 인프라 구축사업과 대국민 전력산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전력산업이동홍보관 운영, 배전공사 기능인력의 공정한 평가 및 자격증 관리, 전기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전기원교육훈련 등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전기계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전기계가 우리나라 경제의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 나간다면 앞으로 훨씬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정기총회가 대한전기협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에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원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23일
大韓電氣協會
會長 韓 竣 皓